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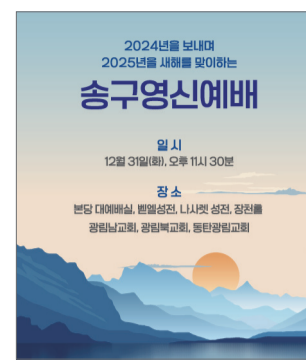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church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2024 성탄 감사 음악예배

미가엘성가대, 메시아와 성탄절 칸타타로 따뜻한 위로와 기쁨 나눠

대림절 셋째 주일인 12월 15일, 오후 7시 30분에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에서 2024 성탄 감사 음악예배가 열렸다.

'하나님을 찬양하라(시 40:1-3)는 안산돌 목사의 말씀 후, 미가엘성가대 주관으로 진행된 성탄절 찬양예배는 헨델의 메시아와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성도들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을 충만케 하였다.

헨델의 메시아(Messiah)는 세계 3대 오라토리오 중 하나로 손꼽히는 종교 작품으로 총 3부 53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메시아의 예언과 탄생을, 제2부는 메시아의 부활과 영생을 주제로 한다. 특히 제2부의 44번 '할렐루야'는 런던 초연 당시 영국의 국왕 조지 2세가 듣고 기립하였다는 속설 때문에 가장 유명하며, 여러 매체를 통해 인용되어 널리 알려졌다. 이번 미가엘 성가대의 성탄 칸타타에는 서곡과 독창 아리아, 대표적 합창을 포함한 10곡으로 연주되었다.

1부 <메시아>에 이어 2부에서는 <성탄 캐럴 페스티벌>로, 친숙한 성탄 캐럴 15곡에 마크 헤이즈(Mark Hayes)의 새로운 곡들이 더해진 화려한 성탄 칸타타이다.

즐거움 오프닝 메들리로 시작하여 소프라노 독창자를 위한 '마니피캣', 어린이 합창이 포함된 '구유 메들리'까지 빼어난 곡들이 많이 있었다. 남성과 여성 해설자의 사랑스러운 성탄 스토리의 전개 속, 악장 간의 음악적 흐름을 예민한 감성으로 연결했다. 마크 헤이즈의 건반 반주는 그 자체로 순수한 즐거움을 주며 합창을 놀라게 채워주었다. 이번 미가엘성가대의 성탄 칸타타에는 안소망 작곡가의 번역으로 오케스트라 반주와 함께 연주되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땅의 평화와 더불어 하늘의 영광은 우리가 천국에

서 누리게 될 미래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뻐하는 절기가 강림절입니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조지 프레드릭 헨델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탄생부터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아름답고 웅장한 곡조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절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슬픔 가운데 기쁨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위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며, 연주를 준비한 모든 성가대원과 오케스트라 단원들, 지휘자와 반주자, 성가대장을 비롯한 모든 수고한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미가엘성가대는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연습하며 기도로 준비하였다. 메시아 성탄절 칸타타를 마친 후, 미가엘성가대장(맹경호 권사)은 "주일 첫 예배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미가엘성가대는 기도와 찬양으로 모인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오늘 대원님들 각자의 노력과 사랑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승화되었음을 느낍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라고 인사하며, 탁월한 지도력으로 지도한 지휘자, 부지휘자와 반주자, 솔리스트와 파트장, 총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한 운영위원과 젊은 대원들의 헌신과 봉사로 협력하여 성공적인 연주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울리며 감사했다.

광림의 성도들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여 참된 평화, 기쁨, 희락을 누리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성탄 감사 음악예배를 드렸다.

변영혜 기자

2 광림의 강단
은혜 입은 자가 부른 찬송

3 광림 스토리
신천임원 선출

4 하나님을 만나다
스테반 가족 송년 페스티벌

5 다음세대
청년부 사랑의 슈박스 전달식

8 특집
2024 광림교회 10대 뉴스

은혜 입은 자가 부른 찬송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눅 1:48)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은 비천한 자, 갇힌 자, 눌린 자, 그리고 무엇인가에 억압 당하며 자유롭지 못한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교만한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자, 거짓된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것이 기쁜 소식인지 심판의 소식인지 우리의 자세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탄의 소식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까요? 가장 바른 의미와 더불어 가장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성탄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눅 1:31)고 말하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하며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천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부른 이 노래는 마리아만이 부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크신 일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큰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가 부른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이고, 어떤 상황에서 불렀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수 오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마리아가 부른 노래는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마리아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자기의 비천함을 돌아 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비천하다’라는 말은 자신의 현실이 비참하고 참담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마리아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장 48절의 마리아의 고백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호티’가 말씀 시작에 나옵니다. 이를 원문대로 해석하면, “보라 자신은 비천한 여인인데 자신을 복 있는 여종이라 불려질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에 비록 비천한 사람, 비천한 상황에 노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여인의 찬송이요, 그리스도인의 찬송이며 성탄의 기쁨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



누가복음 1:46-56
46.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9.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공홀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데도 51.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고 52.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54.그 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공홀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56.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니다. 가족 간의 갈등,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 여러 가지의 문제와 상황들을 돌아보면 내 형편과 상황이 비천하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실 뿐 아니라 나를 살피주시고, 은혜를 나에게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믿음을 마리아처럼 받아들일 때, 어떤 상황에 처하여있었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부른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앙고백의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찬양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눅 1:46-7). 마리아의 이 노래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녀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려야 할 바른 신앙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우리의 죄를 대신 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대로 사흘 안에 부활하시어 살아계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나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믿는 사람의 바른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고백이 우리 삶 속에 드러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심령(영)이 살아나고, 우리 삶의 깊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삶이 오늘 성탄을 맞는 우리들의 고백이요, 이 고백 속에 예수 오심을 기뻐하는 감사와 감격의 삶이 넘쳐나는 성탄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온전한 찬양으로 드러지는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찬양을 드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찬양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라고 노래하는데,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찬양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저 자신의 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 메시아의 탄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에 마리아는 온 힘을 다해 전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릴뿐만 아니라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을 기록하신 하나님시오, 공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눅 1:49, 54)

마리아의 온전한 찬양은 공홀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을 신뢰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복 있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표현대로 하면 주린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신 하나님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기록하심과 더불어 공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합함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공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리아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 기쁘게 주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감독회장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광림 경조위원회 총회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한 해를 결산하는 감사의 자리



광림교회 경조위원회(위원장 배경호 장로)는 지난 12월 7일(토) 오후 5시,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2024년 경조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 각 교구의 경조회 임원들과 전도사, 선교구 목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는 지난 한 해 동안의 경조위원회 활동 상황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수고한 경조위원들에 대한 감사의 자리로 마련됐다.

1부 예배에서 김정석 감독회장은 '다윗을 공개했던 바르실래(삼하 19:31-39)를 소재로 말씀을 전했다. "바르실래는 위기에 처해 있던 다윗을 공개하고 인정해 주었으며, 정성껏 섬

기고 헌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다윗을 섬겼고, 다윗은 그의 사랑에 대한 보답을 잊지 않았습니다. 경조위원들이 바르실래처럼 헌신적으로 섬김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광림의 교우들이 큰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배경호 장로가 진행한 2부 순서에서는 2024년에 진행된 경조위원회 활동 보고가 있었고, 행운권 추첨으로 모두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3부 애찬 시간에는 선교구별로 모여 식

사를 하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고 친교를 나누었다.

배경호 장로는 "우리 경조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교우들의 기쁨과 슬픔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찬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경조위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광림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앞서는 장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춘천에 위치한 감람동산에서 현재까지는 장묘를 산골장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수목장에 대한 요구가 많아져 감람동산에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수목장이 조성 중에 있다. 장례 및 감람동산에 관하여 상담하면 광림경조위원회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02-2056-5379, 010-5218-4453

이정순 기자

포토 뉴스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수료식
12월 22일 주일 저녁 예배에서
트리니티 및 교육 프로그램
수료식을 진행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커팅
성탄절 아침, 장로회 주관으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케이크 커팅이 있었다.



사회사업위원회 슈박스 후원
사회사업위원회는
청년선교국이 주관하는
슈박스 행사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감독회장 동정



- 12/9 CBS 창사 70주년 기념예배
- 12/10 여선교회 송년예배
- 12/11,12 신천임원 면접
- 12/14 스테반 송년 페스티벌
- 12/15 유아세례
- 광림복지재단 이사회
- 메시아 연주회
- 12/25 성탄축하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유병권 기자

2025년 신천임원 선출

복음의 풍성함을 전하기에 힘쓰는 신천임원 되길



광림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신천임원이 선출되었다. 신천임원 시험은 지난 12월 10일 나사렛성전에서 있었고, 면접은 11일과 12일 뱀엘성전에서 진행되었

다. 이번에 선출된 신천임원은 총 114명으로, 집사 47명, 권사 67명이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신천임원에게 골로새서 1장 24~27절 말씀을 전하며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라는 2025년 광림교회 표어를 선포하며, 2025년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신천임원들이 앞장서서 귀한 표어를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고 세 가지 당부 말씀을 전했다.

"첫째, 신앙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성장과 더불어 성숙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임원이 되시며,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 전도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를 신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분명한 소속감을 느끼고 어느 부서에서든지 내게 주신 직분을 꼭 활용해서서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 교회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이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선출된 신천임원은 12월 29일(주일) 저녁 예배 시 본당 대예배실에서 열리는 당회 및 구역회에서 정식으로 임명된다.

박희운 기자

당회·구역회, 신천임원 선출과 교회 행사 보고



당회 및 구역회가 12월 29일(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에서 열린다. 매년 연말에 열리는 당회 및 구역회는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감리교회 내 중요한 회의이다. 당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첫째는 입교인 정리, 둘째는 새로운 임원 선출, 셋째는 교회를 조직하는 것이

다. 구역회에서는 예결산 결의, 재산 관리, 인사처리, 지방회 대표 선정 등이 이루어진다. 참석 대상은 세례 받은 18세 이상의 입교인과 교역자, 직분을 맡은 장로, 권사, 집사, 교회기관 부장, 속장, 선교회 임원 등이다. 올해는 신천집사 47명과 신천권사 67명, 총 114명이 새롭게 직분을 받게 된다. 또한 교회 안

팍에서 이루어진 각종 사업을 남선교회, 여선교회, 실업인선교회는 영상을 통해, 나머지 위원회는 서면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을 다해 온 광림의 성도들에게 봉사패를 수여하며 격려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당회 및 구역회를 인도하는 유병용 목사(서울남연회감독)는 감리교단의 비전과 계획을 밝히고 앞으로 추진할 중요 사업과 목표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2025년 광림교회 표어는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골 1:27)로 내년에도 세계와 국내 선교를 위한 사명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유병권 기자

'화환 대신 사랑의 쌀' 행사 열려

12월 8일, 청년선교국 후원금도 전달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는 12월 8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 로비에서 '화환 대신 사랑의 쌀' 행사를 갖고, 12월 각 교구에 지급할 쌀 108포를 전달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김정석 감독회장은 지난 11월 자녀 결혼식 때 사랑의 쌀 10kg, 80포를 지원한 박찬규·이수경 권사(18교구) 부부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랑의 쌀은 현재 격월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교구로부터 대상자 가정의 주소를 받아서 택배로 보낸다.

2007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쌀은 올해 648가정에 2,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금까지 총 5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조성하여 13,200가정을 지원했다.

아울러 청년선교국이 주관하여 소외된 어린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슈박스' 캠페인에도 남선교회는 3백만 원을 후원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격려의 말씀을 통해 "광림교회가 외부에 대해 구제활동을 많이 하는데 교회 내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 요즘 젊은 층에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경향이 많아서 사랑의 쌀 성금 조성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선교회에서 꾸준히 이웃 사랑을 펼치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남선교회에서는 사랑의 쌀 후원금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숙한 시설을 방문하여 필요한 생필품이나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전달해 오고 있다.

안산에 소재한 '만나복지원(원장 공성혜), 김포 '은빛마을(원장 조화자) 그리고 춘천 '나

눔의 동산(원장 김재수)으로, 이곳은 대부분 교사들이 숙식을 함께 하며 장애인들을 돌보는 시설이다.

박기연 장로는 "남선교회에서는 사랑의 쌀을 통해 조성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 교회가 아닌 외부 예약장에서 결혼식을 할 때도 화환 대신 사랑의 쌀을 전달한다. 동참해 주시는 교인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남선교회가 되겠다"고 했다.

올해 가장 많은 사랑의 쌀을 지원한 박찬규 권사는 "첫째에 이어 둘째 딸도 광림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한 가정을 이루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식을 치루면서 사랑의 서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득섭 기자

스테반 가족 송년 페스티벌

스테반 회원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제하고 화합하는 소중한 시간 가져

지난 12월 14일(토) 오후 4시,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는 '스테반 가족 송년 페스티벌' 행사가 열렸다. 매년 연말,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 주관으로 진행되는 스테반 대표 행사로 올해는 180가정, 350여 명이 한데 모여 훈훈한 연말 분위기를 자아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입구 포토월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스테반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한 아름 받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아이들은 함박웃음을 지었다.

스테반 부부 찬양팀의 여는 찬양으로 시작된 1부는 '가족 오락관' 컨셉으로 다양한 상품이

걸린 게임과 퀴즈가 진행됐다. 마시멜로와 스파게티로 탑 쌓기, 간주 듣고 노래 알아맞히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게임으로 현장의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됐다.

가장 이목을 끌었던 '여자 팔찌를대회에서는 공미선 집사(8교구)가 1등을 하며 쌀 20kg를 선물로 받았다.

2부는 김정석 감독회장이 누가복음 2장 13~21절 말씀으로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기에 칭찬받고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았는가?'라는 말씀을 전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고 뜻깊게 생각했고,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했으며, 이스라엘 온 민족의 기쁨이 된 마음 넓은 여인

이었다고 전하며 광림교회의 중심이자 교회를 이끌어갈 자로 할 스테반 가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순종하며, 선교의 기쁨을 알길 원한다고 당부했다.

축도 후 경품 추첨의 시간을 가졌다. 노트북, 호텔 식사권, 에어팟, 백화점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이 준비됐는데, 각각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축하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그 시각 아이들은 교육국 전도사들과 함께 3층 풋살장에서 축구와 피구를 하고, 에어바운스·페이스페인팅·팝콘 등을 즐기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맛있는 피자도 저녁 애찬을 즐기며 스테반 가족들은 서로 교제하며 친목을 다졌고, 참석한 모든 가족들은 도넛 선물

을 받고 두 손 가득히 집으로 돌아갔다.

박기연 장로는 "하나님은 역사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역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신다"면서, "스테반 선교회가 함께 모여 교제하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의 지경을 더욱 넓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광림교회, 그리고 남선교회의 주축이 되는 스테반 회원들에게 부디 모이기에 힘써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혜선 기자



STEPHEN Festival
광림 스테반가족 송년 페스티벌

일시: 2024.12.14(토) 오후 4시
장소: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
대상: 광림교회 스테반선교회 회원 가족

프로그램
* 1부 오후 4시 - 오후 5시: 가족오락관 (게임8퀴즈 상품)
* 2부 오후 5시 - 오후 5시 30분: 담임목사님 말씀 & 어린이 프로그램
* 3부 오후 5시 30분 - 오후 6시 30분: 지역회사 & 경품추첨 (LG 그림 노트북, 호텔식사권 등)
* 스페셜코너: 선물주는 산타할아버지 (오후 3시 30분 - 4시 / 아동 선착순 50명)
*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 가정에게 참가선물을 드립니다.
* 세신자랑씩 적극 환영합니다. (새신자 선물증정)
* 문의: 각 교구 전도사, 남선교회 사무실 (02-549-5794)

청년부

예수님의 사랑 나누는 슈박스 패키징데이, 전달식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매년 성탄의 계절을 맞아 '사랑의 슈박스' 캠페인을 통해 국내외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번 패키징데이와 전달식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12월 14일,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5층에서 열린 패키징데이에서는 약 900개의 슈박스를 준비했다. 청년들은 각 박스에 RC카, 담요, 필기도구 세트, 레고 블록 등 다양한 선물을 담았다. 이 물품들은 국내 아동들에게 직접 전달되며, 해외 선교센터에는 모금액을 전달하여 현지에서 슈박스를 준비하고, 아동들에게 나누어질 예정이다. 해외 선교센터에서는 이번 캠페인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 아동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예정이다.

터의 아동 700명, 소아암 및 희귀질환 아동 200명, 13개 지방 미자립교회 아동 400명, 강남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 2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청년들은 선물을 포장하는 동안,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포장에 정성을 기울였다. 패키징데이에 참여한 이재민 청년은 "예수님이 오시는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 900명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만들 수 있어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슈박스 선물을 통해 아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이 잘 전달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2월 22일 오후 4시, 광림교회 본당 로비에서는 사랑의 슈박스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청년

들이 직접 포장한 슈박스는 성도들의 사랑과 함께 국내외 아동들에게 전달되었고, 이 시간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뜻깊은 순간이 되었다. 전달식에서는 성도들과 청년들이 모여, 예수님의 사랑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전달식에서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 오심의 기쁨이 온 세상에 퍼져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 기쁨을 모르는 소외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캠페인으로 1,600개의 슈박스가 전달되어 예수님의 사랑이 아동들에게 전해지게 되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해 주신 청년선교국과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기쁨이 널리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전하며, 강남복지재단

과 한국소아암재단 관계자들에게 기증서를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중요한 순간이었다. 패키징데이와 전달식에서 나누는 사랑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성도들과 청년들의 마음과 기도가 모여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역으로 그 의미를 깊이 새겼다. 그 사랑은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로 아동들에게 전달되었다.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나누는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이번 캠페인의 여운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일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김세열 전도사(청년부)

사랑의 슈박스는 해외 9개 나라 11개 선교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2월 15일(주일), 3부 예배에서 김정석 감독회장의 집례로 10명이 유아세례를 받았다.



김예주, (부)김정우, (모)김지현



박이나, (부)박건우, (모)박인영



고이서, (부)고휘윤, (모)장세영



김서연, (부)김신욱, (모)신재은



장윤슬, (부)장지욱, (모)이도경



배하준, (부)배현욱, (모)이보미



배하민, (부)배현욱, (모)이보미



김지환, (부)김미성, (모)김성은



김수연, (부)강태훈, (모)한지현



서하윤, (부)서익훈, (모)이다혜



목회현장

어두운 터널을 함께 걸으며



청년들을 만나면, 그들의 삶이 종종 어두운 터널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꿈은 막막하고, 관계는 흔들리며, 경제적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청년은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걸까?”라고 눈물을 흘리며 묻고, 또 다른 청년

은 자신의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감당하려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아프고 무거워집니다.

목사로서 청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들이 겪는 시험과 고난을 대신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들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조용히 곁을 지키며 함께 걸으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터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행은 단순한 위로가 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일임을 매 순간 깨닫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캄캄하기만 하던 터널 속에서, 청년들이 겨자씨만 한 믿음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디딜 때,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지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 엉켜 있던 실태라가 하나씩 풀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는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요 12:46)라는 주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청년부에서는 이런 간증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들을 함께한다는 것은 저에게 가장 큰 특권이자 감사의 제목입니다. 청년들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여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역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며 그들과

함께 걷는 것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청년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들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터널을 벗어난 후에는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인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삶의 무거운 짐들 앞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며, 이제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 빛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청년들과 함께 걷는 이 길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김주송 목사(청년부)

광림남교회

모두가 행복한 '성탄 페스티벌'



광림남교회는 지난 12월 22일, 주일 저녁에 배 시간에 310명의 어린이들과 성도들이 참석하여 예수님이 이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 페스티벌'을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예배실 입구에는 대강절 기간 동안에 진행된 '나만의 예수님의 생일 선물 만들기'에 참여한 아이들의 창의적이고 아기자기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페스티벌의 첫 순서로 김봉겸 원로장로와 이상옥 권사의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맞이하는 자작시 '성탄맛이' 낭송이 탁영인 청년의 가야금 연주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어린이영어에배부에서는 영어로 성탄찬양을 멋지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유아부의 어린 천사들이 음악에 몸을 흔들고 엄마와 함께 성탄찬양을 하는 모습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유치부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하였고 이어서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불렀는데 성도들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유년부는 예수님의 탄생을 힘차게 깃발과 응원수술로 환영하고 찬양하는 치어리딩 공연을 하였고, 성도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초등부에서는 멋진 '칼립소 캐럴'을 지휘에 맞추어 멋진 화음으로 공연하였습니다. 중·고등부는 역동적인 CCD 공연을 하였는데, 주님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멋진 미래가 기대되는 공연이었습니다.

이어서 성탄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인 성극 공연이 있었습니다. 남교회 청년부 회장인 주수진 청년이 연출을 맡고,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가 연합하여 공연한 성극인 '빈방 있습니까'는 예수님의 탄생을 감동적으로 표현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향수와 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선영진 목사(교육청년실)는 “성탄, 모두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준비한 페스티벌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더욱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했고, 서재희 집사는 “어느 때 보다도 풍성한 성탄 페스티벌이었어요!”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기쁜 소식이 남교회 교회학교와 성도들을 통하여 널리 전해져 구원받는 이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박현선 전도사(광림남교회)

동탄광림교회

성탄의 기쁨과 은혜로 물들다



동탄광림교회는 지난 12월 22일 주일 저녁, 창립 이후 처음으로 교회학교 성탄발표회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모두 참가하여 성탄의 기쁨과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과 율동으로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유치부는 귀여운 크리스마스 코스튬을 입고 '탄일중,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율동과 함께 선보이며 발표회의 문을 열었다. 아이들의 밝은 표정과 사랑스러운 율동은 따뜻한 웃음을 선사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무대에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으며, 사랑스러운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

이어 무대에 오른 유초등부는 '그 얘기 들어 봤니'를 앞서는 방식으로 성탄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마라나타 캐럴'은 일어서서 찬양하며 더욱 생동감 있는 무대를 선보였다.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와 동화 같은 모습은 성도들에게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따뜻한 동심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성도들은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와 진지한 태도에 공감하며 찬양의 은혜를 만끽했다.

중·고등부는 '그 맑고 환한 밤중에'와 'Sing Sing Sing'을 찬양하며 발표회의 마지막 순서를 장식했다. 특히 어둠 속에서 촛불을 들고 찬양하는 장면은 마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밝히시는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촛불의 은은한 빛과 청소년들의 진심 어린 찬양이 어우러져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날 성탄발표회를 통해 교회학교 학생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회에 참석한 한 성도는 “아이들의 찬양과 모습에서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동탄광림교회는 앞으로도 교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회는 그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순간이었으며, 성도들 모두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남긴 특별한 행사였다.

김동진 전도사(동탄광림교회)

청장년부

Wedding Anniversary Party

신혼부부 초청해 신앙공동체에서 따뜻한 교제의 시간 가져

청장년부(위원장 신범식 장로)에서는 지난 12월 22일(주일), 신혼부부들을 초청하여 '결혼 기념 파티'를 개최했다. 결혼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는 신혼부부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신혼가정들이 함께 만나 신앙적인 가정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결혼 기념 파티를 열었다.

이 날 결혼 기념 파티에는 많은 신혼가정들이 방문하여 따뜻한 식사 교제와 함께 풍성한 선물을 나누었다. 입구에 마련된 게시판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도 포스트잇으로 붙이며 속마음을 꺼내놓기 시

작했고, 김성석 감독회장의 격려와 축복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길 소망하는 신혼가정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며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북돋아 주는 시간이 이어졌다. 기존의 가정들은 신혼의 때를 잊지 않고 추억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풍성한 연말이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난 가을 결혼하여 이번 결혼 기념 파티에 참석한 박창선·한성희 부부는 "초청해 주셔서 청장 연합 모임을 통해 뵈던 분들과 더 가까이 교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밝은 분위기의 청장2부가 참 보기 좋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모임 후기를 전했다.

청장2부를 통해 많은 신혼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고 배워 서로의 따뜻한 돌봄의 공동체에서 잘 성장하기를 기도했다.

사랑은 표현해야 전해지며, 시작된다. 이렇게 따뜻한 점心和 마음을 나누며 서로 궁금한 점과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가운데 추운 연말은 따뜻하고 귀한 행복의 시간이 되었다.

한 해 동안 아픔과 상처는 있고, 잊어버리면 안 될 소중한 은혜와 추억을 기억하며 2025년에는 더욱 가정의 회복과 치유, 건강한 의

사소통과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 강건한 가정을 꾸려나가길 서로 응원했다.

오늘 또 하나 추가된 추억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어 소중한 가정을 꾸리게 해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금 느끼며 신혼 공동체, 가정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나가길 소망했다.

청장년부는 혼인과 언약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새 신부처럼 기다리는 광림의 3040 세대가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길 기도하며, 2025년에는 더욱 성장하는 청장년부가 되길 기도하고 있다.

고민재 전도사(청장년부)



2025년 감리교회 속회공과, 하늘양식 가정예배서



한국 교회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
2025년 감리교회 속회공과와 하늘양식 가정예배서가 발간되었다. 광림교회의 자랑인 속회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든든한 기둥이며, 교회 안의 작은 교

회이다. 속회 안에서 같은 지역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와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할 때 성도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복음 전도의 길이 열린다.

2025년 속회공과는 한 권 안에 52과의 말씀이 실려 있으며 1년 동안 사용하게 된다. '한국 교회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속회공과를 통해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며 잃어버린 신앙의 전통을 다시 발견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선조들의 믿음을 배우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

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다. 교제에는 성경 본문과 함께 한국교회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계보가 한국교회를 통해 이어지며 그 전통을 이어갈 광림교회 성도의 사명을 새롭게 하게 된다.

하늘양식 가정예배서
하늘양식 가정예배서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일깨워 주는 가정예배서이자 개인 묵상집이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하며 묵상할 말씀을 통해 가족이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경통독도 할 수 있다. 새해에 가정예배와 성경통독을 계획하고 있다면 좋은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가정예배서 안에 생일, 병환, 시험, 추모

등 특별한 날에 드리는 예배를 위한 예배 순서와 설교문이 실려 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랑의 보금자리이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믿음의 성전이다.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가족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가정의 회복을 넘어 교회가 회복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2025년 속회공과와 하늘양식 가정예배서는 빛의 숲 서점(사회봉사관 1층 카페 루체포레안)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 목회선교지원실(02-2056-5733)

소현수 기자



2024 광림교회 주요 뉴스

2024년 광림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로 예배와 말씀, 기도와 선교, 미래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한 해 동안 배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한 2024년 믿음의 시간들을 돌아본다.

✚ 이상희 기자

- 광림교회 70주년 역사서 발간** '광림교회 70년 그 불꽃 같은 이야기'는 성령의 인도로 세상의 빛이 되는 불꽃 같은 복음의 역사를 담고 있다. 사진과 함께 70년의 역사를 다섯 파트로 나누어 교회 역사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를 실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대 김정석 감독회장 당선** 9월 26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가 제30대 감독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제21대 감독회장을 지낸 고(故) 김선도 감독에 이어 광림교회에서 두 번째 감독회장이 탄생했다.
- 김정석 목사 제30대 감독회장 취임** 10월 31일,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대 감독회장으로 취임하며 감리교회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 장로취임예배** 5월 19일, 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광림교회 장로 11명의 '장로취임예배'가 성도들과 예배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드려졌다.
- 장흥 빛의교회 봉헌** 4월 29일, 전라남도 장흥군에 광림교회 후원으로 '장흥 빛의교회'가 완공되어 교단 관계자와 성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예배를 드렸다.
- 제36회 호렙산 기도회**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삼상 12:16)이란 주제로 6월 3일부터 40일간 제36회 호렙산 기도회가 열렸다.
- 감리교 중남미 선교사대회, 의료선교** 10월 21~24일, 김정석 감독회장과 38명의 의료선교회 선교팀은 중남미 선교사대회와 멕시코 한인 후손 및 현지인 의료선교와 이마용 봉사, 선교 물품 전달 등 다양한 선교 활동으로 복음을 전했다.
- 제6회 광림 한마음등산대회** 10월 9일,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광림실업인선교회 주관으로 열린 제6회 광림 한마음등산대회는 전교인이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등산과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친교의 장이 되었다.
- 잠비아미션센터 건축을 위한 선교바자회** 여선교회총연합회는 10월 15일, 잠비아미션센터 채플, 학사동, 기숙사동 건축을 위한 선교바자회를 열었다.
- 본당 외부, 조명 공사 완료** 10월 25일, 본당 외부 바닥 공사와 함께 본당 조명 공사를 완료하며 다채로운 색감의 변화로 더욱 풍성하고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 광림남교회 LED 전광판 설치** 광림남교회는 11월 3일,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해 광림의 목회 철학, 복음 메시지, 절기에 맞는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이미지와 영상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있다.
- 장천기념사업회 '120인의 담론'** 장천기념사업회는 4월 8일, 목회자와 각 분야 전문가, 평신도 지도자를 초청해 인재 양성, 교회와 국제구호, 북한 선교와 통일에 대해 기념사업회의 나아갈 방향을 토의했다.
- 제26회 통일성취기도회** 10월 17일, 남선교회총연합회 주관으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6개 부대에서 제26회 통일성취기도회를 개최했다.
- 제24회 선교구성가제** 12월 1일, 제24회 선교구성가제는 본당, 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동탄광림교회 총 14개 선교구 2,0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